

2학년 4반 6월 독서토론

주제를 : 사회적 직업군

조원 : 김혜림, 이윤희, 홍세민

도서명	많이	좋아	읽	때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				
현대 사회에 가장 대두가 되는 사회적 문제를 하나에 대하여 서술했었고,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된 문제들에 잘 서술했었기에 이 책을 선택함				
독서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과 그 이유				
김혜림 : '국민보다는 책임있는 행동을' 사람들은 물론인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지만 직접적인 행동은 하지 않으니가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윤희 : '영화와 청년 경찰은 형무로로 조장했는가?' 라는 문장이 인상깊었다. 내가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 '청년경찰' 속의 형무로로 조장하는 부분이 인상깊었다. 생각도 못했었다. 요즘 여성형으로 동성애 형으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나로 오르게 중국 동료들에게 대하는 형무로는 무관심하게 넘어간다고 한다. 다양하고 형으로 대해 인식하게 하는 구절이어서 인상깊었다.				
홍세민 : '망치와 메스가 낡긴 하지만 모든 직업에 숙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형으로 표현은 금지라고 규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형으로 표현을 규제할 해결할 수 있다는 내생각을 간혹하고 이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때문이다.				

김제리: 책 내용에 'KBS 이사가 하는 말은, 동성애자들이 노리는 게 궁극적으로는 국가전복이나고 조작된 것이다' 라는 말이 가장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동성애자에 대해 차별하기 때문입니다.

이은정: ^(책에서) '정말이지, 메릴리아' 메릴리아는 여성 혐오를 하는 일베를 미끼로 하여 대항하는 집단이다, 이 책에서는 메릴리아가 여성들의 스스로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식으로 옹호한다. 하지만 나는 혐오를 또 다른 혐오로 대항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요즘 메릴리아는 처음의 목적인 여성옹호에만 그치지 않고 남성혐오를 하며 일베와 별반 다를 거 없는 흐름을 보여준다. 이는 이러한 시각으로 메릴리아를 옹호함으로써 오히려 메릴리아에 과잉지지 않는다.

홍세민: 역사 부정주의에 대해 서술했다는 것에서 역사 부정주의에 대해 어떻게 선별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다. 역사적 사실 규명이 안전하더라도 그것이 야기될 때 충분히 선별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김혜림: 평소에 우리가 접하는 매체를 통한 혐오 현상이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것들을 다시 알게 된 계기였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어떤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혐오 현상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영진: 이 사회에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혐오가 있다고. 그 혐오들은 굉장히 많은 농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이 책을 통해서 통째로 알 수 있다. 앞으로 혐오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규제가 있어야 하고 혐오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세민: 혐오 표현을 넘어서 혐오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는 대한민국 사회에 직접적인 인원이 잘 드러나고 규제와 예방 사이의 양날의 검을 함께 설명하는 책이 매우 현실 사회가 어떤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기회12: 이점을 읽고 나 자신은 반성하게되는 시간을 가진것 같다.
나부터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동안 나는
다른것 없이 깊은 사색이라는 것을 항상생각해야겠다.

이유13: 이런문제를 극복할법칙규정을 만들어준음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사소한 행동이라도 친절하게 치유기미 있는
바로 지을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홍세민: 무심코 내가 내뱉는 말이 오히려 표현이후도 아파는것을
인식하고 쓰러진 표현을 지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문제에 대해 열심히 너머갈 것이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져야겠다.

*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던 직접적인 계기가 있는지?

* 이런 현대 사회에 대한 문제를 조사할 때
어떻게 관련 자료를 찾는지.

총평: 평소 표현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와 주제에 문제가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안 수 있는 책이었다.

